

[로스쿨 소식]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심포지엄 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지난 7월 2일(월) 14시부터 18시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와 안착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4가지의 주제(‘변호사시험 출제업무’, ‘법조지역 확대’, ‘법전원 결원보충 제도’, ‘법전원 공익소송 및 변호사 연수’)로 이루어졌으며, 김재봉 교수(한양대 법전원), 김기원 법제이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전종익 교수(서울대 법전원),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전원)가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정진근 원장(강원대 법전원), 육소영 원장(충남대 법전원), 이경호 교수(사법연수원), 안용환 과장(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고범준 교육이사(서울지방변호사회), 금원섭 논설위원(조선일보),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마태영 학생대표(법전원 학생협의회)가 참여하였다. 좌장은 민병로 원장(전남대 법전원)이 맡았다.

한기정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법조인 양성 제도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궁극적으로는 법전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